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창원시가 진해에 건립 예정인 야구장에 대해 정부의 부지 재검토 결정이 있었다는 미확인 보도, 인터뷰 약속으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창원시가 진해에 NC구단의 새 야구장 신축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정부가 부지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창원시는 정부가 보낸 공문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새 야구장 부지 재검토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향후 새 야구장의 건설 진행절차, 특색 및 지향점 등을 담은 신청인의 인터뷰 보도를 게재할 것을 약속해 조정이 성립되었다.

| 초상권 침해 사례 | 봄날 스케치 기사에서 동의없이 초상을 촬영·보도, 각 100만원 배상

B신문사는 봄꽃 축제가 한창인 여의도 윤중로에서 반팔 차림의 상춘객들이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촬영·보도하였고, 보도 사진에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 게재한 것에 대해 심리 중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재부는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석현 _ 표지 사진 속 나무와 꽃들이 싱그러워서 산뜻했습니다. 이번 호 기사 중 전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이신 박준서씨의 인터뷰 기사가 유익하고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준서씨는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은 소송 이전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적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한다고 꼬집어 주셨는데요, 평소 제가 생각해도 한국은 소송과잉이 심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송 이전에 서로간의 조정으로도 원만히 해결하는 공존의 조정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소송보다 비용면에서나 시간적으로나 이익이 많은데 말이죠. 아마 언론중재위원회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힘써주세요~!!

우도형 _ 6월호 <인문학 산책/ 성공한 남자일수록 '음욕의 눈'을 경계하라>를 읽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문제에 있어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깨우쳤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도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작품을 썼다 할지라도 사생활이 그리 깨끗하지 않고 스캔들에 휘말려 결국은 작품의 순수성마저 상실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도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성추문이나 성접대 등으로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이 더욱 몸가짐을 신중하고 바르게 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고 있어 흐뭇합니다. '노블레스 오브리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권력층과 부유층들의 빛나간 음욕과 일그러진 성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강창규 _ 소송의 문화 대신 공존의 조정문화가 필요하다는 박준서 전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의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고소, 고발이 빗발치고 있는 언론계에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받아들여지네요. 역으로 이를 빙자해 무차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타인의 명예훼손을 일삼는 일부 누리꾼들에게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함을 잘 역설해 준 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